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홍승지^{1*}

Introduc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Traceability System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Wholesale Market

Seungjee Hong^{1*}

ABSTRACT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EFAPs) are on an increasing trend of supply, but not much enhancing the rate of consumption due to higher premiums and consumers' safety concerns. In order to enlarge the consumption of EFAPs and secure the income of the producing farmers, wholesale market should increase the treating amount of EFAPs and introduce traceability system for satisfying consumers' safety conce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trategies of traceability system in wholesale marke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r this purpose, current traceability systems that are introduced and managed by government and private association are examined.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EFAPs' traceability system in wholesale market, the trading

2009년 05월 12일. 접수: 2009년 06월 17일. 수정: 2009년 12월 08일 채택

[※] 본 논문은 2008년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수행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¹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 교신저자: 홍승지(E-mail: hseungj@cnu.ac.kr, Tel: +82-42-821-6745)

system, the functions of wholesale market, the level of consumers' safety concerns, and the managing costs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wholesale market

1. 서론

친환경농산물은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가에 의한 수요증가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친환경 인증농산물생산량은 1999년 2만 6천톤에서 2007년에는 178만 6천톤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에 달하고 있다(김창길 외, 2008).

친환경농산물은 WTO/DDA와 거대시장권과의 동시다발적인 FT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농업의 필수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친환경농산물은 해외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 열위를 품질과 서비스경쟁력 측면에서 차별화함으로써 우리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대형할인매장, 전문체인점 등에 의한 직거래, 계약재배 등 폐쇄적인 유통경로에 의한 고비용·고마진구조의 고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생산증가를 감당할만한 수요확대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증가 등 새로운 소비추세와 농산물 수입 개방폭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도매시장 역할에 충실한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의 취급 및 확대가 시급

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은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의 기준가격 제시로 생산농가, 특히 신규진입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적정판매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며, 동시에 정체 내지 쇠락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물량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거래물량과 비교해 보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2007년 말 기준 가락·강서 시장에 반입된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거래물량의 약 3.8% 수준인 10만톤 내외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거래 물량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품목은 유기 및 무농약 인증품보다는 저농약 인증품이나 하품위주로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취급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자체 안전성검사 기능의 강화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시스템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매시장에서의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방안이나 기존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유통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도매시장의 역할에 친환경농산물의 수집·분산 및 가격형성 기능을 부가·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도매시장에서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도매시장에서의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현재의 이력추적시스템의 운영현황에 대한 사례 분석, 제Ⅳ장에서는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II.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필요성 및 기본방향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도매시장이 아닌 기존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연계를 통한 직거래와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에 의해 분산되는 폐쇄적인 경

로를 통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이력추적이 용이하다. 반면에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친환경인증농가의 모든 출하품에 대한 생산과정상에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상에서 친환경인증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혼재 및 일반농산물의 인증 농산물 둔갑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친환경농산물의 유무판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인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인증이 생산인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출하 이후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생산인증제도의 경우 생산과정의 투명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유통 과정에서의 혼입 문제를 다룰 수가 없으며,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유통과정에 진입하면 일반농산물이나 수입농산물의 혼입과 위조, 인증 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유통업체에서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도용하여 판매하다가 구속되거나 유기농 원료 수입업체가 가짜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의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생산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타 농산물을 혼입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하여 자체점검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생산인증표시 만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실명이나

인증내용 이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나 유통업체가 기준 미달의 제품을 혼입하였거나 인증을 도용하였을 경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결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감독과 규제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와 도매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유통인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¹⁾

유통인증제는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유통되는 총 물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인증과는 별도로 작동되는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통인증제는 물량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인증하면 유통과정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구상으로, 조직화된 투명한 시장에서 출하자의 이력, 출하물량, 유통경로, 최종 구매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유통인증제도의 구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모든 생산 및 유통과정을 공시하여 소비자 개인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자와 생산과정을 객관적 기준에 맞추

어 기준 미달의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한다. 셋째,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생산된 총량이 타 농산물과 혼입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화 및 차별화를 통해 기존 생산인증제도의 한계인 유통과정상의 인증 불가능성을 극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친환경농산물의 이력추적시스템 운영 현황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경우와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 관리·운영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는 농림수산물부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을 들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이력추적시스템은 친환경유기식품 유통인증협회의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이 있으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는 농협유통의 안심확인시스템, 풀무원의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등이 있다.

친환경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시스템은 주로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민간협회나 민간

1)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소비자 조사(이철희 외, 2005)에서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력추적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이력추적관리의 중요성 : 매우 중요 47.9%, 조금 중요 44.7%, 그저 그렇다 6.4%, 부정적 1.0%). 또한, 이력추적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안심 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95.4%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고 응답함.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산물이력관리추적제도 하에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우수농산물인증품(GAP)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로 친환경인증농산물만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4호의3). GAP 시범 농가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및 2006년 1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하였고, 2006년 1월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유통(APC, RPC, 도매업자), 판매(소매업자)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소정의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농산물에 이력추적품 표시를 해 이력추적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을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채소, 과수/수실 등 100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표 2-1 참조).

2008년 6월 현재 이력추적등록 실적은 생산자 2,344건(소속회원 3만 5,859명), 유통업자 742건, 판매업자 666건 등 총 3,752건이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유통·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첫째, 관리품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둘째,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표 2-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구분	작물명
식량작물(10)	쌀, 콩, 보리쌀,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특용작물(4)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약용작물(32)	구기자, 당귀, 백문동, 울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은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롱(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등굴레(위유)
버섯(10)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채소(28)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깨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 쌈채류
과수/수실(16)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밤, 호도, 잣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셋째, 농약 등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로 기록·관리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생산자의 경우 농산물 생산·출하정보를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 하거나 생산자별로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출하정보 중에서 관리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생산정보 : 생산자, 품목, 재배지·면적,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② 출하정보 : 날짜, 품목,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함)

유통자의 경우는 농산물 입고·출고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유통단계에서 입고·출고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고정보 :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② 출고정보 :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함) 판매자의 경우는 농산물 입고정보(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한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유통·판매자는 관리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관리품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 폐기, 용도변경 등

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농산물의 유통경로의 생산·유통·판매자 모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력추적등록 및 등록자의 사후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력추적등록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등록자가 입력하는 이력추적정보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품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당해 농산물을 조사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또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기타 관리품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이다.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이력추적정보의 원활한 관리와 보급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지역농업법인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농산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06년 1차 구축을 거쳐 2007년 5월부터 팜투테이블(www.farm2table.kr)로 도매인과 서비스명을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팜투테이블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이력추적정보는 농산물 이동정보, 생산정보 및 상품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동정보 : 생산출하, 유통입출고, 판매입출고, ② 생산정보 : 재배정보(농약, 비료, 친환경작업 재배일지), 수확 후 관리(건조, 도정, 선별, 세척, 포장),



그림 2-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www.farm2table.kr)

③ 상품정보 : 인증정보 및 검사정보, 규격/등급 /단위별 가격정보 및 구매정보

상품특성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서비스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회서비스와 정보연계 오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력추적을 연상하는 '267번(WINK)+모바일접속키'를 통하여 모든 휴대폰에서 농산물이력추적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코드(2차원바코드) 기능을 이용하여 이력추적관리품에 부착된 모바일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하여 이력추적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정보연계 오픈서비스는 서비스 운영자의 입장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

한다²⁾. 오픈서비스는 연계 오픈서비스와 조회 오픈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연계 오픈서비스는 로컬기반 업무시스템에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정보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서비스로 자치단체 및 농업경영체에서 관리하는 이력추적정보를 팜투테이블에 전송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중앙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에서 모든 이력추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오픈서비스는 농식품 관련 웹사이트에서 농산물이력추적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농식품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방식의 조회 오픈서비스를 적용하면, 해당 웹사이트에서도 팜투테이블과 동일한 수준의 이력추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 오픈 API는 포털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기반인 개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플랫폼을 개방해 자사의 검색 결과나 사전 데이터, 지도 등을 외부 페이지에 심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환경을 의미함.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표시

이력추적관리인증품의 등록표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품을 인증하는 로고와 관련정보가 수록된 이력추적관리표지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력추적관리 심별 로고와 이력추적관리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이력추적관리표지는 그림 2-2와 같으며, 표시내용으로는 원산지, 품목(품종),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 포장단위의 실증량 또는 개수,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조직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수확 후 관리시설 관련 정보, 그리고 농산물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개체 식별번호 등이다.



그림 2-2. 농산물이력추적관리표지 및 모바일QR드 정보조회 사례

이력추적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 연도번호 두 자리와 이력추적등록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 등 총 12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별단위(로트) 번호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

율적으로 부여하되, 농산물의 생산여건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등록자는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장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장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이력추적 인증이 공신력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력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서비스나 조회 오픈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이력추적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이력추적정보의 이용 확산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는 연계 오픈서비스를 통해 향후 국가 차원에서 농산물의 이력추적에 있어서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수집 및 통합관리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단점으로는 이력정보의 시스템 상의 자료입력문제, 이력추적제도 상 자율등록 운영, 이력추적표시내용, 식별단위(로트) 번호 관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생산·유통·판매자는 관리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역으로 추적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동일한 문제의 원인으로 인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에 해당 정보가 입력·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역추적에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의 소비 확산을 위한 소비자의 알 권리 확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속한 이력추적과 소비자가 편리하게 인증품에 대한 확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이력관리 자료가 시스템에 입력·관리될 수 있어야 하지만, 생산농가의 고령화 및 규모의 영세성, 정보화 미비로 인해 이력정보의 수집과 분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사후 관리 측면에서 생산농가의 이력정보 입력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료입력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생산농가가 손쉽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이나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지원, 생산농가의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 등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력추적등록자 규정과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5 제1항 단서에 대통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규정된 품목이 없으며, 희망자 자율등록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포함한 등록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력추적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력추적관리표지 표시내용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친환경인증번호를 포함함으로써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력추적 단계별로 농산물의 출하량, 입고량, 판매량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품과 일반 농산물간의 혼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유기식품 유통인증협회 소개 / 생산유통인증시스템 키코드 소개 / 고객센터 (게시판)

생산유통인증시스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포장에 있는 유통인증번호로 이력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다래(전환기유기)
인증번호: 17-02-2-1
산지: 경남 마산시
중량: 5kg
성명: 이영국 (마산내평참다래)
주소: 경남 마산시 진전면 일암리 201
전화: 055-271-01**

친환경농산물 유통인증
인물 인증서 소지하여
오른쪽의 정보를 공개
하고 유통되는 중 통행증
발급함으로써 유통정보를
보통의 책임인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니다.

http://www.kcod.or.kr

유통인증번호: 111149 1
2 3 4
20070212 / 100 / 26
69445M45900 000
01021222000003151

유통인증번호 검색
(유통이력, 생산자이력, 상품이력, 필지이력 조회)

검색

생산유통인증스티커 안내
유통인증스티커우측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 1 유통인증번호**
매일 인증스티커를 발행할 때마다
새로운 유통인증번호가 자동 부여됩니다.
유통이력과 생산이력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2 포장 날짜**
매일 포장 날짜가 인증스티커에 기록됩니다.
- 3 인증스티커 출력 총 수량**
인증스티커 발행 당일 출력된 스티커 총 수량입니다.
- 4 출력 고유번호**
해당 유통인증스티커의 개별 고유번호입니다.
- 5 유통 바코드**
유통과정에서 사용되는 바코드 정보입니다.
블류엔터 및 유기농산물 판매장에서 사용됩니다.

Notice & News
유통인증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제40호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승인 2008.03.17
-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한국 조폐공사간 업무협... 2008.01.21
- 조폐공사에서 위조방지기능을 넣은 인증스티커 인쇄하여... 2008.01.10
- <일림> 가공식품(성연두유) 생산유통인증 시작 2007.05.30
- 2007 하이서울 건강도시 엑스포 참가, 유통인증시스... 2007.05.23

KEYCODE (생산유통인증시스템)
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KEYCODE는 시스템 명칭입니다.
유통이력, 상품이력 상세 체험하기

KEYCODE 제원하기

- 친환경유기농산물 판매장 현황보기
- 상품 검색 서비스

그림 2-3. 친환경유기식품 유통인증협회 홈페이지

자료: 친환경유기식품 유통인증협회(www.kcod.or.kr)

시스템 상의 관련자료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식별단위(로트)의 번호 부여 및 이력관리단위를 생산, 출하날짜나 최종소비자의 구입단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친환경유기식품 유통인증협회

친환경유기식품 유통인증협회는 2005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친환경유기식품의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검증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소속 단체나 생산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통인증협회의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생산과정의 관리로 모든 관리 품목에 대하여 파종부터 수확, 저장, 출하 시까지 직접 산지를 방문하여 생산이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유통과정 관리로 예상수확량과 최종수확량, 그리고 출하량을 점검하고 기록하며 유통과정의 총량이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생산유통인증시스템(KCOD, Korea Certification Of Distribution for Eco-Friendly Foods Association)과 현장관리 인력을 통한 관리이며, 세 번째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으로 산지 점검과 전산상에 기록되는 모든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비자와 유통업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다.

1) 생산유통인증시스템(KCOD)

유통인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유통인증시스템(KCOD)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인증품목의 유통과정을 실시간 추적하고 이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생산관리 담당자가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함으로

써 정보의 충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생산유통인증스티커를 출하량만큼만 발행하고 인증스티커는 원격으로 실시간 관리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일반 농산물의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유통인증협회가 인증한 품목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책임인증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총 4개의 유통단계별 점검 및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재배과정에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과정 점검, 재배과정에서 수확예상량 수시 파악, 최종수확량 점검, 거래처별 출하량 점검, 인증스티커 총량 관리 및 발행량 관리, 그리고 KCOD 시스템을 통한 생산자의 다양한 정보의 소비자 전달과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과정에서는 거래처별 출하량을 기준으로 각 유통지점별 입고출고 양을 실시간으로 체크, 가공원료로 출하된 양은 가공과정을 점검한 후 가공품 생산량을 체크하여 인증 부여, 기타거래처의 경우는 출하량 확인,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 전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매장에서는 실시간으로 판매량 정보가 KCOD 시스템에 전송, 그리고 유통업 관계자는 KCOD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상품의 상세정보 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구매할 상품의 유통인증번호로 생산자이력, 재배이력, 필지이력, 유통이력 등을 확인하고, 부정 유통인증번호를 확인한 소비자는 곧바로 부정유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생산유통인증스티커

생산유통인증스티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그림 2-4 참조).

- 1) 유통인증번호 : 매일 유통인증스티커를 발행할 때마다 새로운 인증번호가 부여되며, 이 유통인증번호로 재배정보와 유통정보를 검색·확인 가능
- 2) 포장 날짜 : 매일 포장 날짜를 유통인증스티커에 기록
- 3) 인증스티커 총수량 : 당일 해당 품목의 유통인증스티커의 총 출력수량을 의미
- 4) 출력 고유번호 : 유통인증스티커의 고유번호를 의미하며 중복되지 않음.
- 5) 유통 바코드 : 유통과정에서 사용되는 바코드 정보로 물류센터 및 유기농산물 판매장에서 사용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3)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의 장단점

유통인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은 생산농가의 정보입력 부담 경감, 유통과정에서의 일반 농산물과의 혼입 차단, 인증농산물의 단계별 이력추적 정보의 전산 입력에 따른 신속한 역추적 및 소비자 정보 확인 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유통인증센터의 담당자가 재배단계의 전 과정을 점검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토록 하고 있어 생산농가의 이력정보 입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입력정보의 충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인증품에 부착할 인증스티커를 발행할 때마다 고유인증번호가 부여되고, 식별관리 단위가 포장날짜, 인증스티커 총수량, 출력 고유번호를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농산물과의 혼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산지 점검과 전산상에 기록되는 모든 유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비자와 유통업 관계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안전성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필요시 웹사이트에서 이력정보의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림 2-4. 생산유통인증스티커 사례

유통인증협회에서는 2008년부터 인증스티커의 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및 위조방지 기능 추가로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인증스티커의 위조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조방지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인증 신뢰도를 제고하고, 위조방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친환경인증스티커는 2008년 1월부터 유통인증협회를 통해 생산자에게 배부되고, 인쇄량, 사용량,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유통

인증품에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통인증협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인증시스템 운영도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은 자체 점검인원 운영방식과 식별관리 단위의 세분화에 따른 비용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른 적용대상의 확대 가능성 등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생산단계의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원과 식별관리 단위의 세분화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으로 인증품의 단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로는 이력추적관리 적용대상의 확대 가능성에 제약이다. 생산단계의 정보 수집 및 관리가 자체 점검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인증신청 농가나 유통업자 증가 시 적용대상 품목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소비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점검 인력 확충의 한계를 친환경인증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후 관리 정보 공유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통인증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이력정보 제공채널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IV. 도매시장 유통 친환경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1.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나 시스템 구축과 관리 인력 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나 강서시장 급식유통센터 운영주체가 구축·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하의 이력추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나 단체, 관련유통업체들이 이력추적

관리제도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존 시스템의 활용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차원에서의 농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수집 및 통합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인증 등록건수가 적고, 유통인증협회의 경우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제약 문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실제로 추진할 경우 이력관리의 단위 및 소요비용,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거래시스템, 도매시장이나 유통센터의 기능,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고려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유통센터에 적합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급식유통센터의 거래제도나 기능,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인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단체)와 친환경도소매업체가 이력추적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는 이력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관련 웹사이트의 구축·운영이다. 소비자들의 이력정보의 신뢰성과 이력추적관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해 이력정보가 관리·검증될 필요가 있으므로 급식유통센터 운영주체와는 관계없이 서울시 또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유통센터에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 작목반, 농협, 영농법인, 친환경단체와 시장도매인, 그리고 판매업체의 이력추적관리등록과 이력추적 관련 정보의 전산 상 입력 의무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제 도입을 통한 이력추적관리등록 유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전산 상 이력추적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경우 중복 부담을 주지 않도록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의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출하처 급식유통센터 지정 시 입력 자료의 자동 업로드), 그리고 이력추적 정보의 전산 상 입력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세 번째로는 유통과정에서의 일반 농산물과의 혼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식별관리 단위를 최종 소비자의 구입단위와 일치시키고, 포장날짜, 인증스티커 총수량, 출력 고유번호를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소포장 및 전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포장 시 급식유통센터 이후의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추적 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이력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이력정보 제공채널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 검토, 직판매장의 경우 구입자가 이력추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 그리고 모바일코드(2차바코드) 기능을 이용한 이력추적 정보 조회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이력추적관리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학교 급식이나 단체 급식 된 친환경농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농산

물의 안전성 조사,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 여부,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기타 관리품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나 출하단계 조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력추적품 조사 시 소비자 단체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된다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일정하지 않고 참여자 수도 강서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서시장과는 다른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거래물량 확대 측면에서 이력추적제도 등록이나 이력추적 정보의 전산 상 입력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나 민간기관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이나 매참인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나 민간기관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 및 참여를 유도하고, 중도매인과 매참인의 경우 이력추적 정보 입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이력추적 관련 정보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기존 이력추적운영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기관 배너 게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의 운영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생산인증만 표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자체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력추적 관련 정보를 송품장에 추가적으로 기입토록하고 이를 도매법인이나 가락시장공사에서 기록·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친환경농산물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의 인증정보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기

이력추적관리번호는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과의 연동 가능성과 기 등록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이력추적관리번호 체계를 이용하되 식별단위(로트) 번호는 농산물의 생산여건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식별단위의 크기는 이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식별관리 단위가 작을수록 관리표지 및 포장지 제작비용과 관리 노력이 상승하는 반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은 단위까지 추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위험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식별단위(로트) 번호 부여 시 단위의 세분 정도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통과정에서의 일반 농산물과의 혼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유통센터에 출하하는 품목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상에서 식별단위(로트) 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별관리 단위를 최종소비자의 구입단위와 일치시키고, 포장날짜, 인증스티커 총수량, 출력 고유번호를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3.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도매시장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매시장에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할 생산자나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농가 등 전산 자료 입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산지 출하 단체를 대상으로 입력을 대행해주는 방안 마련과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의무화하여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토록 하여야 한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이용 기반 구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자료 입력이나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RFID 기반 시설의 지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전에 생산자(단체)나 판매자에게 홍보하여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관련 유관기관 간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 산지의 농협과 생산자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유통인증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나 협의 등을 논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친환경농산물은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친환경농산물이 주로 대형할인매장이나 전문체인점 등에 의한 직거래 등 폐쇄적인 유통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빠른 생산증가를 감당할만한 수요확대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증가 등 새로운 소비추세와 농산물 수입 개방폭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의 취급 및 확대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매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친환경농산물 거래물량의 6% 내외에 그치고 있어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취급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취급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자체 안전성검사 기능의 강화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시스템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도매시장에서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이력추적시스템의 운영현황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사례별로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도매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생산자(단체)와 친환경도소매업체가 이력추적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는 이력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관련 웹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으로 담당주체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 작목반, 농협, 영농법인, 친환경단체와 시장도매인, 그리고 판매업체의 이력추적관리등록과 이력추적 관련 정보의 전산 상 입력 의무화이며, 이를 위해 전산 상 입력 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유통과정에서의 일반 농산물과의 혼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식별관리 단위를 최종소비자의 구입단위와 일치시키고, 포장날짜, 인증스티커 총수량, 출력 고유번호를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소포장 및 전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포장 시 급식유통센터 이후의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추적 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로는 이력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이력정보 제공채널의 확보로 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의 연동, 단말기 설치, 그리고 모바일코드(2차바코드) 기능을 이용한 이력추적 정보 조회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로는 이력추적관리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학교 급식이나 단체 급식 된 친환경농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 여부,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기타 관리품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나 출하단계 조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력추적품 조사 시 소비자 단체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와 이를 통한 소비확대는 생산자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 경로의 모든 주체가 노력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방안과 유통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모색, 그리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창길, 이용선, 이상건. 200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98.
2.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연구.
3. 이철희, 심근섭. 2004.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발전방향. 농업경영정책연구. 31(4):713-730.
4. 이철희, 이영주, 심근섭. 2005.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생산자·소비자 인식 연구. 식품유통연구. 22(1):157-176.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6. 농림수산물식품부. www.maf.go.kr.
7.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www.garak.co.kr
8. 친환경유기식품 유통인증협회. www.kcod.co.kr.
9.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www.farm2table.kr.